

Cultural Words

ই (Hyo)

It is related to Korean cultural concepts of devotion.

It is a sense of duty and responsibility that children have to their parents.

"Hyoja (효자)" stands for devoted son, and

"Hyonyeo (효녀)" is a devoted daughter.

눈치 (Nunchi)

This term defines the art of being in touch with other people's feelings, ideas, and emotions to engage and respond to a situation correctly.

Anyone who has strong "noon-chi" can read the body language or voice tone of other people to understand their true feelings.

A person who has this skill is "눈치가 빠 르다" Who lacks it is "눈치가 없다"

내숭 (Naesung)

This word defines fake moves / behavior / words that a fake person is doing.

It is often used to refer to fake timid or na ive actions that people do around others.

정 (Jeong)

"Jeong" is the original and unique form of social ties. It could be translated as symphathy, mutual respect, love within a community, group, ethnicity, nation they belong.

Even Koreans often find it difficult to define.

"Jeong" refers to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ties that bind Korean society.

효녀심청 Filial Daughter ShimCheong

옛날, 어느 마을 심학규라는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심청이라는 딸이 살고 있었어요. 심청이의 어머니는 심청이를 낳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어린 아기를 키워야 했어요.

and so the blind father had to raise her.

심봉사는 우는 딸을 안고 동네 아주머니들 에게 갔어요. "저어 아주머니, 이 아이에게 젖을 좀 주세요." "쯧 쯧, 불쌍하기도 하자." 심청이는 동네 아주머니를의 젖을 얻어 먹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먹으며 자랐어요.

"Excuse me miss, would you please give milk to my daughter?"

ShimCheong grew up by getting some of the local ladies' milk and by eating porridge.

ShimCheong grew up like this, until one day she became five years old. All of the ladies praised her.

One day, the neighbors made some rice so they called ShimCheong.

효녀심청 Filial Daughter ShimCheong

심청이가 효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는 이웃 마을에 있는 정승 댁에서 심청이를 불렀어요. "네가 심청이더냐?" "네, 그러하옵니다."

"마음만 고운 줄 알았더니 얼굴도 아주 예쁘구나."

There was no one who didn't know that ShimCheong was a good daughter.

You are ShimCheong right?

정승 부인에게는 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청이를 수양딸로 삼으려는 것이었어요. "얘야, 난 너 같은 딸을 두고 싶은데, 나와함께 살지 않겠니?" "말씀은 감사하오나 앞을 못보는 아버지를 모셔 야 해서······." "그러면 낮에는 이곳에서 지내다 해가 지면 집으로 가면 어떻겠니? 맛있는 것은 매일 싸 주마!."" 고맙습니다. 마님

The Duke's wife did not have any daughters, so they wanted to adopt her

will give you delicious food and pack some for your father everyday!' "Thank you. Ma'm.'

심청이는 아버님께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어요. 정승 댁을 오 가던 어느 날 심청이가 조금 늦게 오게 되었어요. 심봉사는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개울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요!

At the thought of being given delicious food and also some for her father too,

ShimCheong decided to do it.

One day ShimCheong was a little late coming back from the Duke's house.

Her father, was becoming worried so he went out to meet her. But he fell into the stream.



효녀심청 Filial Daughter ShimCheong

지나가던 스님이 심봉사를 건져 주었어요.
"뉘신지 정말 고맙습니다."
"뭉은사에 있는 중인데, 앞을 못 보시는 군요."
"이 눈만 뜰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공양미 삼 백 석이 있다면 눈을 뜰 수 있긴 한데……"

"그게 정말이세요?

"Is that right?

집으로 돌아은 심봉사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미쳤지 쌀 삼백 석이 어디 있다고 흑흑흑·····."
그때 심청이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슬픈 모습을 본 심청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다. 일을무슨 일·····."
심청이가 계속 묻자 심봉사는 사실을 말했어요.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 넌 신경쓰지 말거라."
"아버지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후로 심청이는 쌀 삼백 석을 구할 생각만 하였어요.

Returning home, ShimBongSa could not withstand his worrying.

"Father, Don't worry. I'll find a way."

Since then, Simcheong was obssessed with getting 300 bags of rice



효녀심청 Filial Daughter ShimCheong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는 우물가에서 아주머니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들의 얘기를 되었어요. "뱃사람들이 처녀를 구한대요." "처녀를 왜요?" "그야 뻔하죠. 인당수에 바칠 제물이죠. 그래서 원하는 건 다 준다나 봐요." 그말을 듣고 심청이는 얼른 뱃사람을 찾아갔어요.

One day, ShimCheong heard the village ladies talking near the well.

'Why a virgin?

Therefore the girl gets whatever she wants" Hearing those words, ShimCheong went quickly to find the sailors.

'It's very rare to see a good daughter like you. ShimCheong asked them to keep this a secret from her father and then went home.

"아버지, 쌀 삼백 석을 몽은사에 보냈어요." "네가 무순 수로 그 많은 쌀을 보냈단 말이냐?" "정승 댁에서 주셨어요. 대신 저는 그 곳에서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러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얼른 눈을 떠서 잘 사셔야 해요." "아이구! 청아! 흑흑흑······."

심청이는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였어요.

"Oh no. Cheong!

ShimCheong had no other way but to lie.

효녀심청 Filial Daughter ShimCheong

이윽고 심청이가 팔려 가는 날이 되었어요. 심청이는 아침 일찍 아버지의 옷가지를 정리해 놓고 마지막으로 올릴 밥상을 차리는데 눈물이 나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누가 우리 아버지 밥을 차려 드리고, 누가 옷가지를 챙겨 드릴까? 아버지! 흑흑흑·····."

Finally the day came for ShimCheong to be sold. "Who will prepare father's meal and fix his clothing? Father!"

심청이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밥상을 드리고 큰절을 하였어요. "아버지, 절 받으세요. 그리고 눈을 꼭 뜨셔서 오래오래 사세요." "청아 감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오늘이 정승 댁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때 뱃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아! 이게 무슨 소리냐? 혹시 뱃사람들을 따라? ·····."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 된다! 청아, 자식 팔아 눈을 뜨면 무슨 소용있다구!"
절대로 못 단다! 여보시오! 저 어린 것 좀 잡아 주시오!"

You absolutely cannot go! Hello! Please grab my child!

효녀심청 Filial Daughter ShimCheong

뱃사라들도 마음은 아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 어찔 수 없었어요. 배가 인당수에 이르자 뱃사람들은 제를 올리고 심청이는 기도를 하였어요.

The sailor's hearts were also hurting, and ShimCheong prayed.

"하느님! 부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심청이가 바닷물에 뛰어든 순간 하느님이 용왕님께 명하여. 심청이를 보살피게 하였어요. God! Please open the eyes of my father. god ordered the King of the ocean to take care of her.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고?" 심청이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오! 참으로 보기 드문 효녀로구나.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 주마."

ShimCheong told him the truth.

"Oh oh! Such a filial daughter is so rare. I will send you back up to the world again."

며칠후 뱃사람들이 인당수를 지나다 큰 연꽃 하나를 발견하였어요. "저것 좀 봐요!" "바다에 웬 연꽃이?" 뱃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서 임금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임금님은 신기해 하며 꽃을 살펴 보았어요. 그 때 꽃이 열리면서 심청이가 그 곳에서 나왔어요. "그대는????……" 심청이는 사실을 말씀 드렸어요.

"Who are you???" ShimCheong then told him the truth.



효녀심청 Filial Daughter ShimCheong

인금님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고 심청이를 왕비로 맞이하였어요. 왕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의 소식이 궁금하여 견딜 수 가 없었어요. "왕비의 안색이 좋지 않구료!" "송구하옵니다. 마마." "걱정마시오. 모든 장님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기로 하였소."

The king believed that everything was the will of god and welcomed ShimCheong as a queen.

The Queen's complexion is not well!"

"Don't worry. I have decided to throw a party for all the blind people."

잔치는 사흘 간 열렸어요. 왕비는 아침부터 대궐 문으로 나가 심봉사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심봉사는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걱정하는 왕비를 임금님이 위로해 주었어요. "혹시 그 안에 눈을 떴을 지도 모르잖소. 그렇지 않다면 내일은 꼭 올 거요.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
"누구신지? 내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 저 청이에요." "청이? 네가 분명 청이냐? " "네, 아버지! 눈을 떠 보세요!"
"청아!~" 순간, 심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버지!" 그토록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사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였고,
왕비까지 된 심청이는 아버지와 해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On the third day the queen was waiting outside the palace gates for ShimBongSa. Finally, she saw ShimBongSa's figure. "Father!" "Who are you?

ShimCheong who had become Queen lived with her father happily ever after.